

# 2023년 제1차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3년 제1차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 개최기관 :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 일 시 : 2023. 10. 5.(목) 15: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행정2부시장,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위원 12명
  - 서울시(3) : 행정2부시장, 디자인정책관(당연직),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당연직)
  - 외 부(10) : 위촉직 위원 총 10명
- ※ 간 사 : 디자인산업담당관
- 주요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업보고, 자유토론

## □ 회의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간 사 :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자유롭게 추천 바람

○○○ : 김성곤 교수님이 좋겠음

간 사 :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곤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음

간 사 :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 바람

○○○ : 이해선 교수님을 추천함

간 사 :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선 교수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겠음

### <자유토론>

위원장 : 서울시는 디자인서울2.0을 발표하였으며,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음. 디자이너들 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서울시와 디자이너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들을 논의해 주면 좋겠음

○○○ : 보고자료를 보니, 디자인 기업, 창업, 마케팅 등 서울시 디자인산업을 위하

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음.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디자인 관련 전시 공간에 가면, 좋은 작품들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음. 그런데 구매를 할려면 정보가 없음. 제품을 구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장소나 정보들이 함축적으로 집약되면 좋을 것. 좋은 제품을 보고, 정보를 얻어서 구매로 이어지는 마케팅적 순환이 되어야 함

○○○ : 디자인 학문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함. 산학협력을 권장하지만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마포의 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좋은 지원 센터임. 이런 센터를 활용하여 학교와 산업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 : 디자이너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며, 그래야 자연스럽게 디자인 산업 위상도 올라감. 예를 들어 ‘디자이너의 날’을 개최하거나, 디자이너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면 좋을 것

○○○ : 계획은 입체적으로 되어야 함. 현재 나열되어 사업 중 집중과 선택을 하여야 함. 올해에 어떤 부분에 더 투자할것인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홍보를 할 것인지 입체적인 중요도가 선정되어야 함.

○○○ : 세계적인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만의 독특함이 무엇일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키워드나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가면서, 디자이너들을 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함.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을 것. 아이덴티티와 집중과 선택이 중요함.

○○○ : 모든 디자인의 키워드를 치면,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 좋을 것. DDP 관련 정보들, 서울시 디자인 정보들이 통합이 되서 한 번만 클릭해도 찾을 수 있고, 홍보도 되고 마케팅도 되고 제품 구매도 되는 온라인 통합이 필요함

○○○ : 서울시 디자인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서울시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면 좋을 것.

○○○ : 서울의 콘텐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것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함. ○○○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입체화를 위해서는 어디에 힘을 집중할지를 먼저 정해야함. 또, 디자인이 문화화가 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디자인이 있어야 함.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풀어나가야 함.

○○○ : 디자인산업의 정의 부분을 말하였는데, ‘서울시 디자인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결과물을 어디에 쏟아 부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서울시의 가치를 높이고, 서울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시에 속해져 있는 디자이너들이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즉 서울시 디자인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될 요소들을 위원회에서 논의 하면 좋을 것.

○○○ : 디자인산업이라고 할 때 제품외에 공간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봐야 함. 또, 스타트업 육성과 중견 디자이너의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각 그룹의 성격에 따른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 : 디자인이 한때는 산업 역군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디자인이 문화가 될 필요가 있음. 또, S디자인 스쿨의 커리큘럼이 중요하며, 특히 강소 기업 대표님들이 디자인을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함. 서울의 주요산업이 IT, 바이오, 콘텐츠 등인데 사업은 제조에 더 중점적인거 같음

○○○ : 디자인산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서울의 매력을 더 증진시켜야 함. 또 디자인 관련 예산 증진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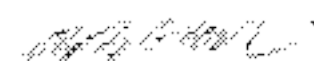
○○○ :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디자인산업에 있어 서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함. 산업과 문화가 균형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위원장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음.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 김 성 곤



위원 : 안 장 원



위원 : 김 중 완

